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ㄱㄴㄷ

힌두사회의 여성관

기원전 3백년경 당시 인도 마가다국의 수도였던 파탈리푸트라에 주재하고 있던 그리스인 메가스데네스는 당시 인도의 풍속을 기술하는 가운데 인도의 부녀자들이 '정절을 중시하지 않았으며, 쉽게 매춘을 한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따빠타 브라흐마나> 등에서도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후기 베다시대(기원전800-500년경)에 여성의 도덕의식이 그다지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우파니샤드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인 야쥬나왈캬는 "처가 정절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 수 있으리오"라는 자조적인 말을 남기고 있다. <마하바라따>라는 책에도 여성들이 성적으로 매우 자유롭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기풍에 족쇄를 채운 것은 바라문교였다는 사실이 리투가마나의 규정으로 알 수 있다. 이 규정은 다른 사람의 처와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규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바라문교의 지도자들이 당시의 자유스러운 성 풍조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성위주의 종교적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었던 바라문교에서는 시세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들의 교설을 확대하고 종교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 남성위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규정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베다시대에는 대부분의 축제나 종교의식이 여성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특히 가정에서의 제사는 여성들의 참여 없이는 집행되지 않았다. 베다 초기에 부부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으며, 소녀들은 소년들과 같은 종류의 교육을 받았다. 이 시대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는 것은 신들 중에 여신이 많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더위의 여신인 우샤스, 밤의 여신인 라뜨리, 강의 여신인 사라스와띠, 대지의 여신인 쁘리티위 등 다섯 손가락을 꼽을 정도이다. 이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여신은 더위의 여신인 우사스였다. 리그베다 안에서 우사스를 찬미하는 노래가 20편이나 되며, 이 책 전편에 걸쳐 3백여회나 이름이 등장한다.

그렇지만 리그베다 최고의 여신인 우사스도 후기베다시대가 되면 등장회수가 드물어진다. 브라흐마나 문헌에서 창조주인 쁘라자빠띠와 그의 딸인 우사스가 통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부녀상간(父女相姦)의 신화는 이란의 창조신화에 등장하는 근친결혼의 풍속에서 연유하며, 이러한 신화의 전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몰락하고 있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후 브라흐마나 문헌은 여성을 철저하게 폄하하고 있다. <마하바라타>에 의하면 여성은 본질적으로 사악하며, 정신적으로는 오염되어 있다고 본다. 여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위가 오염된다고 하며, 그런 점에서 여성은 해탈을 방해하는 사악한 마구니다. 여성은 자신을 제어할 수 없으며, 제사에는 부정한 존재들이다. 여성들은 정의롭지 못한 밀통에 눈을 반짝이며, 내심으로는 까다롭고 혹독하며, 사려분별이 부족하다. 벌레도 죽이지 못할 것 같은 얼굴을 하면서도 그 배후에는 정욕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으니 여성의 성욕은 만족할 줄 모른다. 등등 여성을 폄하하는 내용으로 넘쳐나고 있다.

여성을 멸시하는 내용은 마누법전에 이르면 극에 달한다. "여성을 죽이는 것은 곡물이나 가축을 훔치는 일이나 술 취한 여자를 강간하는 일과 같다. 아주 작은 죄일 뿐이다". 이외에도 "여성은 항상 독립해서는 안 된다"거나 "여자는 본래 성품이 사악하다" 등으로 폄하하며, 나아가 "베다를 독송할 수 없다"든가 "제사를 지낼 수 없다" 등의 차별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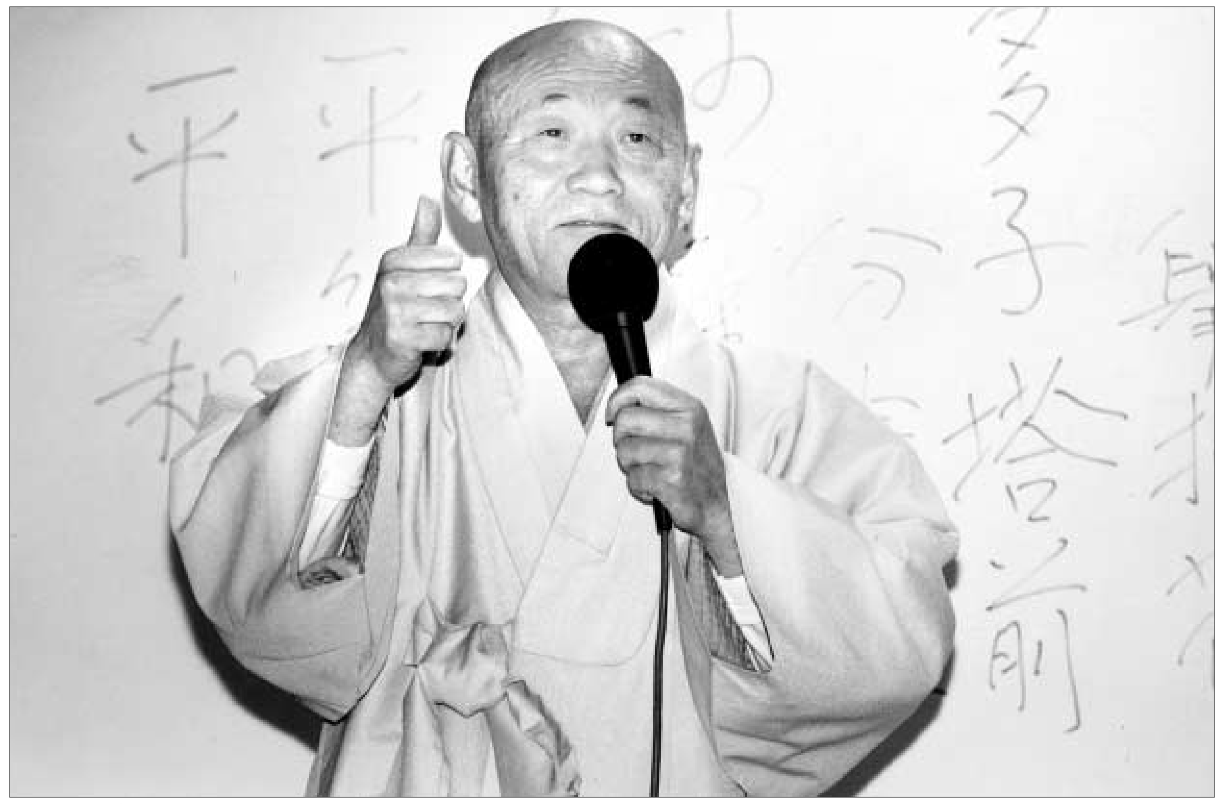
고전에 여성 폄하·차별내용 가득
당시 풍조 불교에 자연스레 스며

재산의 소유나 유산의 상속 등이 제한되었는데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법전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표현한다. 힌두사회에서 여성의 종속적 지위는 힌두법전에 이르러 완전히 확정되기에 이른다.

<힌두법전>에서는 여성의 존재 이유에 대해 '조상과 신들에 대한 종교적 의무를 영원토록 계승하기 위해 사내아이를 생산하는 일'이라 말한다. 대표적으로 <나라다법전>에서는 "여성은 자손을 생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따라서 아내는 밭이고, 남편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다. 밭은 씨앗을 지닌 사람에게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힌두교의 여러 법전들은 임신하기 좋은 시기에 아내와 동침해야 한다는 종교적 의무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렇게 고대 인도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리그베다시대 이후 점차 낮아지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바로 아리안문화의 정착과 동시에 인도사회에 뿌리내리는 브라만교 내지 힌두교의 남성위주의 문화적 풍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가 불교의 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30여년 포교현장을 누비다 3년간 안거수행을 한 암도스님은 올 봄부터 다시 대중법문을 시작했다. 지난 3월26일 다보법회에서 법문하시는 모습.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 고민했습니다. 우주의 진리를 환하게 꿰뚫은 자리에서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바로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진리를 전하는 것이야 말로 자신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란 결론을 내리고 함께 수행한 적이 있는 다섯 비구들을 찾아갑니다. 녹야원에서 그들을 만나 전법(傳法)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열반에 들기까지 40년 동안 교단을 세워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큰 가르침이 팔만 사천의 대장경으로 정리되어 교학을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깨달음의 이론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깨달음조차 초월한 절대 진리의 원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는데 이것이 선불교의 길을 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 수행의 궁극 요체는 부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궁극 요체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세 번이나 무언의 설법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 하는데 그 삼처전심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오늘날 우리 인류가 갈망하는 목표와 긴밀하게 부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산회상에서 꽃을 드시다

부처님이 대중들을 모아 놓고 설법을 하시는 자리, 영산회상(靈山會上)이라 하는데, 어느 때 부처님은 이 자리에서 대중들을 향해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꽃을 들어 보였는데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섭존자가 그 뜻을 알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부처님은 왜 말 없이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을까요? 듣고 싶으니까 들었죠(청중들 박장대소). 그건 부처님 자유입니다. 꽃을 들건 돌을 들건 그건 부처님 자유입니다.

그리고 가섭은 왜 빙그레 웃었을까요? 그것도 가섭의 자유입니다. 얼굴을 찡그리거나 엉엉 울거나 가섭의 자유입니다. 꽃을 든 것은 부처님의 자유요 미소를 지은 것은 가섭의 자유이니 그 두 분의 자유 앞에서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이 없는 곳에서 말이 없는 것을 전하니 그 뜻을 어떻게 말로 지껄여 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향해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꽃을 든 소식도 미소 지은 소식도 중생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은 말로 헤아려 마음으로 알아야 할 뿐입니다. 나는 그 소식이 바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의 생명은 절대 자유이니 부처님은 그 소식을 전하고자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신 것입니다.

자유가 뭔지 누가 말씀해 보세요. 자유스럽게. 자유란 글자를 풀이해 보면 자기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란 말도 있고 자작자수(自作自受)란 말도 있는데 들어 봤을 겁니다.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자유이기에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탁한 것은 바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저지르는 일은 많은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참자유' 위해 자주·자조·자립해야

진정한 자유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선 자주(自主)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서 주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행복해 집니다. 스스로 조연이나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옹졸하고 비굴하고 초라하게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신만 책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무슨 일을 해도 지극한 마음으로 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조(自助)적으로 사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자신을 돕는 것도 자신뿐입니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실도 없습니다. 또 자립(自立)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의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작은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성불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들 삶의 목표는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은 탈탈 털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털어내느냐. 바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털어내고 자유로워지라는 겁니다. 그 자유를 찾기 위해 선가(禪家)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붙어 있는 집착의 흔적들을 탈탈 털어내라는 겁니다.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는 가풍으로 추구하는 자유, 이것이야 말로 인류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는 큰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욕심 버리면 '해탈의 꽃' 핍니다

지상 백고좌

암 도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장)

자리를 나누어 함께 앉다

부처님이 다자탑 앞에서 제자들을 모아 놓고 설법을 하는데 지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꽃을 든 소식을 알아 차렸다고 앞에서 얘기한 가섭존자입니다. 늦게 도착하여 어색하게 앉을 자리를 찾고 있을 때, 부처님이 가섭을 앞으로 불러 자신이 앉은 자리에 함께 앉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고 하는 행위가 부처님이 마음을 드러낸 두 번 째 사건이 됩니다. 스승과 제자가 그것도 다른 제자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방석을 깔고 앉는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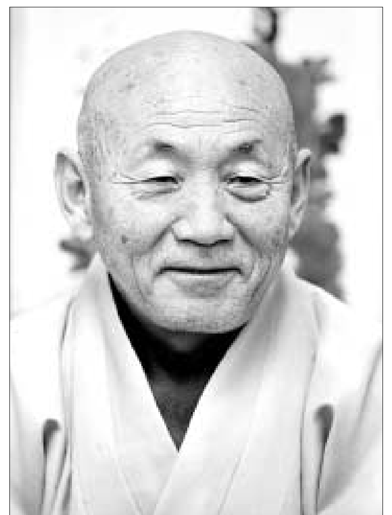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가섭과 자리를 나눠 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중에 그 뜻을 아신다면 지금 이 단상으로 올라와 저와 함께 앉아도 될 것입니다. 올라오시는 분이 아무도 없군요. 오늘 법사 자리를 빼앗길까 염려 했더니 (청중들 다시 박장대소)…

평등원리 몰라 세상 날마다 싸움

평등, 절대 평등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은 바로 일체중생의 평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걸승(傑僧) 함허득통 선사는 "평등한 불성 가운데는 피차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체중생은 모두가 평등하게 불성을 지닌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싸움통이 되는 것은 바로 평등의 원리를 모르고 평등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평등과 균등의 지혜를 거부하면 욕심이 발동하여 심통이 틀어지고 심통이 틀어지면 쌍통(얼굴)도 일그러져 마침내 한 판 붙어 버리는 것이니, 그 한 판의 싸움이 이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지 지금 여러분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잘 보고 계십니다.

두발을 내밀어 보이시다



◇자유 · 평등 · 평화의 궁극을 부처님의 '3처전심'에서 찾으라고 강조하는 암도스님.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성도 후 40년 동안 길에서만 생활 하시다가, 쿠시나가라 들판의 나무 아래서 육신을 벗으시고 영원한 법신이 되셨습니다. 그 나무를 사라수라 하는데 두 그루가 함께 서 있어 사라쌍수라 합니다. 입적에 드신 부처님 앞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도 지각생이 있었습니다. 또 가섭존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전법을 하다가 부처님 열반소식을 듣고 달려 왔는데 이미 부처님은 관 속에 모신 뒤였습니다. 가섭이 절을 하고 관을 세 바퀴 돌았습니다.

그때 관에서 부처님의 두 발이 쑥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식입니까? 평화의 소식입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초월하고 생과 사의 윤회로부터 초월하여 자신과 일체중생이 다 평화의 들판에 노니는 지고한 존재임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평화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체 중생이 죽음마저 뛰어 넘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체중생이 합심을 해야 합니다.

합심하여 평화만들기 노력하자

그 합심의 구심점은 바로 꽃을 들어 보인 뜻과 자리를 나눠 앉은 뜻, 그리고 관 속에서 두 발을 내밀어 보인 뜻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탐심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세 곳에서 전하신 그 진리의 요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리=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기자가 본 암도 스님

암도 스님을 찾아가 "계십니까?"하면 "암도(아무도) 없다"고 답하며 편안하게 사람을 맞이한다. 스님이 법문을 하는 곳은 언제나 웃음판이다. 옛날 신도들은 "장소팔 고춘자의 만담 보다 재미있다"고 평했다. 구수한 옛날 얘기, 요절복통하게 하는 재담, 얼굴이 빨개지는 육담까지 암도 스님의 법문에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동원된다.

남다른 포교원력…전국 누비며 법문 30년

"아무리 좋은 법문도 맘에 새겨야 법문이지. 법회 때 듣고 잊어버리면 뭐하는가. 내가 말하는 요지를 잊지 말고 오래 기억하여 사는데 보태 쓰라고 양념삼아 농담을 곁들이는 거야."

30여 년 간 몇 번의 법문을 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3천 5백여 명의 법사를 품수해 포교사를 배출한 것만은 암도 스님이었으니 가능했던 일이다. 그만큼 포교에 대한 열정이 큰 스님이다.

그렇게 전국이 좁다 하고 뛰시던 스님은 1999년 장성 백양사로 들어갔다. 칩거였다. 백양사 뒤에 토굴을 짓고 입을 닫아 버렸으니 암도 스님의 걸쭉한 법문은 녹음테이프가 아니면 만날 길이 없게 됐다. 결제철이 되면 스님은 운문선원에서 젊은 수좌들과 똑같이 정진했다. 코피를 쏟고 핏발이 서는 눈을 어루만지면서 3년간 정진을 한 것. 그리고 올 해부터 청하는 곳이 있으면 법문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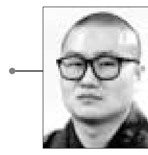
스님은 1939년에 출생해 55년에 백양사로 출가했다. 조계종 중앙상임포교사 · 포교원장 · 교육원장을 거치며 포교사 양성에 힘썼고 <변하는 것은 변치 않고 변한다> 등 저서와 '함허당 득통 사상연구' 등의 논문을 썼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1972년)해 박사과정까지 수료(1978년)했다.

기자가 3월 26일 다보법회에 법문을 하러 온 스님에게 "중생이 있는 곳을 즐겨 다니며 중생이 부처되는 길을 전하는 것이야 말로 스님의 본분인가 봅니다. 스님께서 법문 하시는 많은 주제들을 다 묶어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다.

빙그레 웃으시며 "암도 없다."

심산스님의

스님이야기



우진스님

조주스님은 도를 묻는 많은 납자들에게 "차나 한잔 하게" 라고 말하곤 했다. 아리송한 진리를 묻는 구도자에서 단순한 안부를 묻는 지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던진 차 한잔의 의미는 진정 무엇이었을까? 모든 것이 부질없으니 차나 한잔 마시라는 말인지, 아니면 뭐라고 해도 모를 일이니 차나 마시면서 속을 달래라는 것인지, 분별사량으로 헤아리지 못하겠다. 오늘 이 시대에도 끝없는 차 공양을 실천하는 스님이 있다. 바로 통도사승가대학의 강사 우진 스님이다.

스님 방에는 언제나 스님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큰 절(통도사)에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말사 주지소임을 보는 스님들이나 도반, 그리고 선 후배 스님들이 가장 만만하게 들르는 방이기도 하다. 스님들이 오면 으레 차를 달여 쉼없이 내 놓는다. 그리고 그동안의 안부를 서로 물으면서 걱정과 격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공간으로 변한다. 그래서 우진스님 방은 크지는 않지만 '스님들의 사랑방'이다.

그림 · 문병성

우진 스님의 성격은 원래 깔끔하다. 같은 승복인데도 우진스님이 입은 승복의 모양새는 단정하기 그지 없다. 어디 내 놓아도 어쩔 수 없이 스님이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출가의 길이 잘 어울리는 스님이다. 체구는 깡말라서 살을 찾을 수 없고 무테안경은 수행자의 날카로움을 그대로 담고 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가 펼치는 논리는 질서가 있다. 그래서 도반들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냉정한 이론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성정이 메말랐거나 모가 나 있지 않다. 어찌나 유(柔)한지 스님 전체가 부드러움 그 자체다. 남을 향한 마음에서는 모나고 독단적인 면을 찾을 수가 없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성격을 보였다면 스님 방에 그처럼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자신에게는 고집스러운 인내심이 있다. 대학 도반인 나로서는 벌써 2십년을 보아 온 셈인데, 우진스님은 백상원(동국대 비구스님 기숙사) 때부터 혼자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강원에서도 더러는 쉬어가며 공부하는데, 유독 우진스님 혼자만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꾸준히 공부했다. 그 노력과 끈기가 옆에서 보기에 아름다웠다. 그래서인지 특별히 어디 가서 더 배운 것 없이 은사인 종범스님(중앙승가대 총장)으로부터 전강을 받기에 이르렀다.

스님은 언제부턴가 사찰의 문화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직접 사진기를 들고 전국 각지의 사찰과 문화유적을 찾아 다니더니 사찰 건축과 탑, 불상 등 우리 불교문화의 자료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전문성도 갖추었다. 그렇게 모은 것을 법회나 강의에 활용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것도 스님이 가지고 있는 은근과 끈기의 소산이라고 생각한다.

공군법사 시절의 추억도 새롭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윈 체구에 잠자리 날개 같은 물색 깨끼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다. 국악 하는 사람이나 혹은 새 신랑 같은 이미지였다면 어느 정도 상상이 갈 것이다. 그렇게 멋쟁이였다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옷만 멋쟁이가 아니라 공군교육사령부 법사시절에는 훈련병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했고, 일반 가요를 법회시간에도 부를 정도로 개방적인 사고를 가졌다. 그래서 우진 스님은 인기 법사였는데, 사병뿐 아니라 부대의 모든 불자와 관사의 가족들에게까지 깔끔하고 화통한 법사로 기억되고 있다. 내가 우진 스님의 후임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서 안 사실이다.

절 방문 스님·도반들에 늘 차공양
개방적인 생각…불교문화 일가견

대학 입학과 더불어 만난 우진 스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다. 한 때는 영어 화엄경을 보면서 한문으로 보는 경전의 묘미도 적지 않지만 영문으로 보니까 이해가 더욱 명확하게 다가오는 재미가 있노라고 기뻐하기도 했다. 거기다 강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오래전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스님방의 책상에는 항상 컴퓨터 모니터가 꺼지지 않았고, 바닥에는 찻상이 소담스런 대화를 나눌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처럼 학자적인 면에서부터 어느 순간에는 사진기에 역사의 흔적을 담는다고 현장을 바쁘게 움직이는 탐구적인 모습까지 그의 삶에는 낭비가 없다. 십년을 훨씬 넘는 세월을 통도사승가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도반들과 차 한 잔을 놓고 가지는 여유는 멋스러움의 극치다. 언제나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을 조화롭게 보여주는 우진 스님을 항상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 (사)한나래 문화재단 이사장

산을 좋아하는 불자들의 모임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 신입 회원 초대 안내

본회는 산행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밝고 명랑한 사회질서를 조성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돈독한 우애증진을 기본 이념으로 환경보존에 솔선수범하는 산행단체입니다.

함께 가는 길 (김대원)

구불 구불 / 옮길적마다
길게 누운 / 구도(求道)의 길
오솔길 따라 / 어허라
또르륵 똑 / 연륜의 강
또르륵 똑 / 뛰어넘어
목탁소리 맞춰 / 도반들 손잡고
한 걸음 / 함께 가는 길
두 걸음

◆ 정기산행일
매월 첫째 일요일 – 서울근교 산행
셋째 일요일 – 원거리 산행 또는 성지순례
◆ 회원가입 및 연락처 (홍보부)
02) 730-1080. 02) 2633-5808

제 3기 불교의식
(범음·범패) 무료교육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정
1. 교리강좌(주1회)
2. 의식과정(주2회) : 기본과정, 중급과정, 범음범패
■ 모집인원 : 각 반 10명(선착순)
■ 원서접수 : 수시모집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입학원서 1통
반명함사진 3매 3통
■ 문 의 : 031)562-2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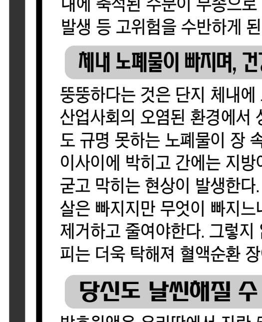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일승불교대학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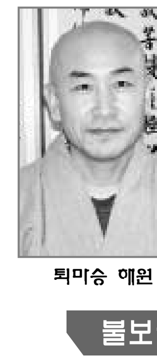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재질(모직) / 조끼·몸배 / 누비

1. 적삼, 조끼, 바지 ₩160,000
2. 동방,바지 ₩160,000
3. 두루막 ₩140,000
4. ₩60,000
5. 적삼, 조끼,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50,000
6. 동방,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20,000
7. 두루막 ▷모직누비 ₩250,000 ▷순면누비 ₩160,000
잔누비 / 셔츠
8. 셔 츠 ₩50,000 (차이나형, 라운드형) 바 지 ₩60,000
라운드형 / 차이나형 ₩30,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중간→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퇴마승 해원

영험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연발효 원액을 이용한 효소 절식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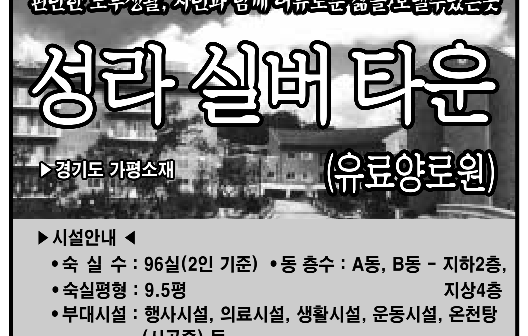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팔보효소)
www.chorokwon.com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성라 실버 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시설안내◀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숙실평형 : 9.5평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입주금 헌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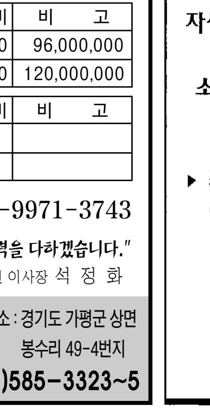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 절 염 / 류마티스 / 초기 퇴행성관절염 / 혈액순환장애 /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 산후바람 / 냉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